지구 위기의 불교적 대안 모색

불교환경연대 전국 임원 · 활동가 워크숍

'기후위기와 에코다르마' 등 주제 발표
"음식과소비 지양, 기후위기 적극홍보"
고리핵발전소 · 가덕도 현장탐방 진행
녹색사찰 확장을 위한 방안도 논의해
"'인간, 자연의 주인' 인식서 벗어나야"



불교환경연대가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부산 대원각사에서 '2022 불교환경연대 전국 임원 · 활동가 워크숍'을 개최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지구는 5차에 걸친 자연 발생 대멸종을 겪었다. 자연이 만든 대멸종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고 자연이 만들었기에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 하지만 6차 대멸종의 원인은 인간이다. 인간이 초래한 대멸종을 막기 위해 불교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만)가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부산 대원각사에서 '2022 불교환경연대 전국 임원 · 활동가 워크숍'을 개최하고 불교환경운동의 가치 공유와 활동 방향을 모색했다.

남진숙 동국대 교수는 '기후위기와 에코다르마'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기후위기로 인한 티핑포인트를 인식하고 먹거리와 과소비를 줄여야 한다. 아울러 환경을 위한 생태보살들이 더욱 많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교환경연대의 에코다르마 방향은 육식을 줄이고 먹는 음식 20%를 줄여 음식 과소비를 지양해야 한다. 또 대학생들과 연대해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기후위기 관련 활동 및 실천에 대한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불교 환경운동 활동 확장을 위해 종단의 관심이 더욱 요구된다"고 말했다.

'2022 불교환경연대 전국 임원 · 활동가 워크숍'은 전국에서 활동하는 임원 및 활동가를 격려하고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기후위기와 에코다르마'와 '윤석열 정부의 거꾸로 가는 환경 정책과 대응전략'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으며, 고리핵발전소와 가덕도를 방문하는 현장탐방도 이어졌다. 아울러 불교환경연대 비전을 고찰하고 녹색사찰 확장을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현장 탐방에 앞서 김해창 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고리핵발전소에 대해 "윤정부는 원전이 탄소중립의 대안처럼 말하지만 업계 희망사항일 뿐"이라며 "유럽연합 분류체계에 따르면 녹색산업 기준에 미달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욱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집행위원은 "가덕도 신공항은 부산의 미래가 될 수 없다"며 "가덕도 신공항으로 인해 역사문화생태환경이 파괴되고 기후위기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 말했다.

워크숍에는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만 스님, 공동대표 효탄 스님, 부산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안도 스님, 부산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 정찬 스님, 부산불교환경연대 감사 윤광 스님, 울산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천도 스님을 비롯한 각 지부 상임대표와 각 지부 임원, 활동가들이 참석했다.

안도 스님은 "인간과 자연은 하나로 연결된 공동체이다. 인간이 자연의 주인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불교의 불살생 정신으로 생명을 사랑하고 공존하는 역할을 더욱 강조해야 한다"며 "기후위기와 환경파괴가 심각한 이 시대에 불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에서 처음으로 워크숍을 열고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기쁘다. 이 자리에서 자연과 생명을 위한 소중한 논의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수사, 진신사리탑 제막…40년 불사 회향

7월 16일 대웅보전 앞, '평화통일' 기원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문수사 진신사리탑이 모습을 드러냈다. 문수사 진신사리탑은 북한 묘향산 보현사 석탑과 경주 불국사 석가탑 상륜부 형태를 더해 남북통일의 염원을 담았다.

부산 남구 문수사(주지 지원)가 7월 16일 대웅보전과 경내 마당에서 '부처님 진신사리탑 제막식 및 신도회장 이취임식'을 봉행했다. 문수사는 이날 불사의 의미를 밝히면서 "불사의 여정을 마무리했다"며 대중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제막식에는 前 조계종 원로의원 법흥 스님, 송광사 방장 현봉 스님, 前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 前 동국대 이사장 법산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박형준 부산시장, 주호영 국회의원, 박수영 국회의원, 오은택 남구청장, 박미순 남구의회의장 등 1000여 명이 동참했다.

제막식은 삼귀의 및 반야심경과 경과보고, 인사말씀, 축사, 법어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 대중들은 식순 이후 마당에 있는 탑제막 현장으로 이동해 제막천을 당겨 모습을 공개했다. 또 문수사는 진신사리탑 불사 회향을 위해 노력해준 김식경 보광명 석예원 대한민국 명장에게 감사패를, 신춘심 前 신도회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주지 지원 스님은 "오늘 이 자리는 불사리탑 조성을 계기로 문수사 40년 불사를 회향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자리이기도 하다"며 "문수사가 더욱더 기도하고 참회해 그 공덕이 이웃에게 회향하도록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막식에 앞서 제 8대 9대 문수사 신도회장 이 · 취임식이 봉행됐다. 박화자 신임회장은 "불사를 회향하기까지 노력해주신 前 회장님과 신도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큰 박수를 보낸다"며 "부처님 진리의 도량이 되도록 주지 스님을 보필하고 신도들의 역량을 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여성불자회, 정분남 제3대 신임회장

7월 19일, 취임식 개최

부산여성불자회(총재 혜총)가 7월 19일 부산 서면 유원오피스텔 501호(포교사단 부산지역단 사무실)에서 제3대 신임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사진〉

이 자리에는 부산여성불자회 총재 혜총 스님, 도림사 주지 정찬 스님, 왕선자 부산여성불자회 명예 회장, 정분남 부산여성불자회 신임회장, 류영남 전 회장, 백명숙 부산파라미타협회장 등 100여 명이 동참했다.

취임식은 삼귀의 및 반야심경 후 인사말과 축사 등으로 진행됐으며, 류영남 前 회장에게 활동한 공로를 치하하며 공로패를 전달했다. 정분남 신임회장에게는 추대패를 전달하며 정진을 당부했다.

총재 혜총 스님은 "이 세상 삼라만상 모든 것은 생사를 걸어놓고 자신의 일을 하고 있다. 꽃은 아름다움을 보여주며, 향기를 건네주며, 꿀을 생산하기 위해 목숨 걸고 일하고 있다. 이게 바로 정진이다. 그래서 꽃이 아름다운 것"이라며 "이 진리를 알면 꽃과 같이 정진할 수밖에 없다. 부산여성불자회는 정진의 힘으로 꽃과 같이 세상의 빛이 되어 달라"고 축사를 전했다.

왕선자 부산여성불자회 명예 회장은 "코로나라는 힘겨운 시간 속에서 회원들의 수행과 정진을 위해 노력해준 류영남 전 회장에게 감사한다"며 "우리 부산여성불자회는 창립 이후 인재불사와 군포교 등 다양한 사회활동으로 포교를 이어왔다.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신임회장과 회원들이 더욱 힘을 내어달라"고 당부했다.



정분남 신임회장은 "부족한 능력이지만 여성 불자를 위해 마지막 봉사라고 생각한다. 회장으로 추대되어 어깨가 무겁고 마음 또한 무겁다. 하지만 전통 있는 부산 불교여성불자회 단체에 함께할 수 있다는 시절인연이라 여기고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한국불교는 여성들이 앞장서서 가정과 사회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국가를 발전시키는 교차역할을 담당했다. 한국 불교의 기틀을 건실하게 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사회적으로 회향하는 데 노력할 것이다.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여성불자회는 1994년에 창립됐다. 이후 청소년 장학금 전달을 통한 인재불사에 앞장서왔으며 군포교, 지역나눔 봉사 활동 등 다채로운 활동을 이어왔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범어사 문중스님 '동산화합승가회' 결성

성주사서 문중스님 90여 명 동참
"문도 화합 · 균형에 어려움 있다"



금정총림 범어사 동산 대종사 문도스님들이 범어사 문중스님들이 7월 13일 성주사에서 동산화합승가회를 결성했다.

동산화합승가회는 14일 부산 연산동 소재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범어사 대중화합과 범어사 가풍 정립의 필요성 등 모임의 취지를 밝혔다.

동산화합승가회는 "범어사 문도의 화합과 균형을 위해 전통적으로 유지한 방법이 있다"며 "교구장 스님의 독선적인 절차로 화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화합을 위해 총림 임회를 위한 문중 안배와 대중의 공의에 따른 임회의원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범어사의 특성상 중진스님들과 논의를 함께하는 장이 필요하다. 특히 범어사 말사의 주지 품신 불만에 따른 해소 방안이 마련되어야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부산불교를 대표하는 범어사의 위상을 확립하고 부산불자의 자부심 고취를 위해 포교를 활성화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며 불사위원회 구성을 통한 신도와 포교를 위한 불사를 강조했다.

동산화합승가회 결성식에는 동산 대종사의 직계 상좌인 흥교, 선래, 대성, 계전, 도근, 몽산, 영환 스님과 문도스님 등 90여 명이 참석했으며, 공동대표에는 범천, 범현, 혜진, 혜성, 강하, 도관, 경흥, 일광, 승련, 법상, 정오, 각명 스님 등 12명이, 간사는 도명, 성광, 범혜, 석산 스님 등 4명이 담당한다.

범어사 종무소는 이에 대해 "임회 구성원 추천은 종헌종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맞춰 진행됐다"며 "말사 주지 품신 역시 소통을 통해 조율하고 인사를 시행했다"고 답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포교사단 부산, 하안거 법화경 독송 대중공양

7월 20일, 독송기도 기간 십시일반 공양금 모아

포교사단 부산지역단(단장 송재린, 이하 부산포교사단)이 하안거 수행 기간 동안 〈법화경〉 독송 기도를 이어가며 십시일반 모은 후원금으로 범어사 스님들을 위한 대중공양을 올렸다.

7월 20일 범어사 공양간에는 여름 입맛을 돋울 특별한 공양이 마련됐다. 부산포교사단이 짬뽕, 김밥, 유부초밥, 과일, 옥수수 등 특식 200인 분을 마련해 하안거 정진 중인 스님들에게 대중공양을 올렸다.

대중공양은 부산포교사단 단원들이 독송 기도를 이어오며 자발적으로 보시한 후원금으로 마련돼 의미가 깊다. 부산포교사단은 코로나 기간 동안 안거를 맞으면 경전 독송을 이어왔다. 부산포교사단 단원 650여 명 40개 팀 전원은 5월 16일부터 77일간 릴레이로 〈법화경〉 독송을 이어오고 있다. 회향은 7월 31일이다.



송재린 단장은 "불법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승가가 있기 때문이다. 스님들이 계셔서 오늘날 우리가 부처님법을 배우고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다"며 "포교사로서 스승이신 스님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승보를 공양하는 것은 거룩한 불사이다. 동참한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사는 송재린 포교사단 부산지역단 단장, 정분남 자문위원, 서영우, 주태돈, 임한규, 이양희 부단장, 조봉례 남부지역총괄팀장, 김옥희 지역중앙총괄팀장, 강태산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용호종합사회복지관, '효도 삼계탕데이'

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서은해)이 7월 16일 관내에서 초복을 맞아 '효도 삼계탕데이'를 개최했다.

㈜한탑이 후원한 이번 행사는 지역내 저소득 독거어르신 300여 명에게 영양 삼계탕 및 선물 꾸러미(모시메리, 국수, 과일, 떡 등)를 전달하며 건강을 기원했다. 나눔 전달식에는 류원기 ㈜한탑 회장과 임직원 및 오은택 부산남구청장, 박수영 국회의원이 동참해 배식활동을 펼치고 지역 내 저소득 · 독거어르신들께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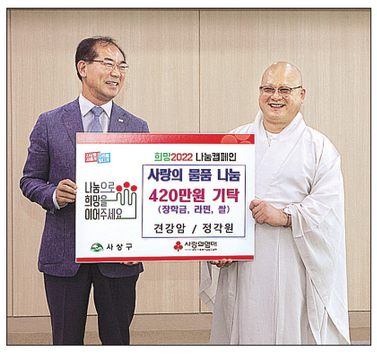
서은해 관장은 "이번 초복 삼계탕 행사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이겨낸 지역 어르신들에게 더운 여름철 활력과 에너지를 되찾는 원동력이 되었다"며 "류원기 회장님의 후원이 없었다면 토요일 무료급식이 어려웠을 것이다. 회장님의 숭고한 뜻을 깊이 새겨 지역의 어려운 어르신들을 더 잘 모시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번 '효도 삼계탕데이'는 ㈜한탑이 2009년부터 13년 동안 이어온 토요일 무료급식지원의 일환이다. 그동안 꾸준히 후원한 후원금과 물품이 약 2억 원에 이르며 이번 삼계탕데이 행사를 위해 1000만 원을 후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견강암, 지역민 위한 사랑의 물품 나눔

장학금 및 식료품 420만 원 기탁



나눔실천도량 부산 견강암(주지 향공)이 7월 20일 사상구청에서 '사랑의 물품 나눔 전달식'을 개최했다.

나눔 전달식에는 주지 향공 스님을 비롯한 견강암 봉사단 정각원 회원들과 조병길 사상구청장, 김선옥 복지정책과장, 이선영 복지자원팀장이 참석했다.

견강암은 전달식에서 장학금과 라면, 쌀(420만 원 상당)을 지원했으며 사상구 산하 지역 동사무소를 통해 소외 이웃들에게 회향될 예정이다.

주지 향공 스님은 "무더운 여름 사상구민들을 위한 물품과 장학금을 마련했다"며 "지역민들이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고 마음의 시름을 덜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병길 사상구청장은 "코로나와 무더위로 더욱 어려운 시기이다. 견강암은 꾸준하게 지역민을 위한 무료급식 및 장학금 지원으로 따뜻함을 안겨주고 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나누우리, 캄보디아 초등학교 개선사업

사단법인 나누우리(이사장 만우)가 민간 구호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제협력 사업지원 공모에 선정됐다.

(사)나누우리는 해외구호 중점 사업으로 캄보디아 초등학교 교육 시설을 개선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사)나누우리는 개선 사업을 위해 7월 6일부터 10일까지 캄보디아 시엠립주 삼부어 초등학교와 쁘레이톰 초등학교 지하수관 정공사 등 8곳의 식수 정수시설을 점검했다. 다가오는 11월 나누우리 회원들과 후원자들이 방문해 교실 20여 곳에 80여 대의 선풍기, 칠판 교체, 위생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